

꿈

성경본문	이사야 43:14~21
요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18~19절).
찬송	490장(통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박수진)
이과의 목표	우리 각자가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꾸어온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당신이 지금까지 꿈꿔온 아메리칸 드림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II. 생각 넓히기

1. “낯선 땅에 뿌리내린 희망”

이는 <미나리>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광고 카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10년을 닭공장에서 병아리를 감별하며 착실히 살아오던 한국계 이민자 제이콥에게 오래 묵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0에이커의 넓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 나은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내 모니카와 어린 두 자녀 앤과 데이빗을 데리고 아칸소에 땅을 사서 이주합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그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꿈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지는 그가 병아리 수컷을 폐기하는 이유에 대해 아들 데이빗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숫놈은 맛이 없어. 알도 못 낳고, 아무 쓸모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되는거야. 알았지?”

한편 도시에서 살다가 졸지에 한국 교회도 없고 가까운 병원이 한 시간도 넘게 떨어진 외딴 시골에서 심장이 약한 아들을 키우게 된 엄마 모니카는 그곳에 계속 살면서 농사짓다가는 결국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들을 생각해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자고 애원합니다. 이에 남편은 “애들도 한번쯤은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걸 봐야될 거 아니야!”라며 그녀에게 쏘아붙입니다.

낯선 땅에 살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의견 차이와 충돌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영문을 모르고 이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딸과 아들은 종이 비행기를 여러 개 접어서 그 위에 “싸우지 마세요!”라고 적은 후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부모들에게 날려보냅니다.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던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옛날 일을 들추며 말합니다: “한국에서 했던 말 기억해? 미국에 가면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거. 서로를 구해주는 거, 하도 많이 싸워서 애가 이렇게 [심장병을 가진 채] 태어난 건가?” 이에 아내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가 서로를 구해주지 못하지만 돈은 할 수 있다는거야?”라며 받아칩니다. 낯선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기는 커녕 급기야 해체의 위기에 처한 이 외로운 이민자 가족을 과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영화 <미나리>는 한국에서 외할머니 순자가 와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2. 미나리의 노래

할머니 순자가 개울가에 심은 “원더풀, 원더풀” 미나리는 외로운 이민자 가족의 구원에 대한 꿈을 상징합니다. 다년생 초본식물인 미나리는 씨를 심은 첫 해에는 거두는 것이 별로 없이 그냥 죽지만 다음 해에 많은 수확을 하게 되고,



주변의 물과 땅을 깨끗이 정화한다고 합니다. 영화 <미나리>를 만든 정이삭 감독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음지(陰地)에서 성공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을 희생한 미나리 같은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 세대와 자신의 세대가 낫선 땅에 뿌리내리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이민교회가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 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고(롬 12:12-13 참조) 하나님께서 낫선 땅에 심으신 미나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닭 공장에서 모니카와 어느 직장 동료가 나누는 대화는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깊은 자기 반성을 촉구합니다.

모니카: “근데 왜 아무도 이곳에 한국 교회를 만들 생각을 안 할까요?”

동료: “열 다섯 명으로 교회를 세우자고?”

모니카: “괜찮았을텐데, 한국 애들끼리 같이 놀 수도 있구요.”

동료: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도시를 떠난 거라구.

한국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모니카: “아...”

하나님께서 낫선 땅에 옮겨 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이민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해야 하나요?(사 43:7, 21 참조)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A Foreigner's Song>라는 찬양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삶으로 읽어 낸 [이뤄 낸]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찬송 부르께 하나이다/ 낫선 나라 이방인의 땅에서/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며/ 고난과 시련 중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네/ 주야로 묵상한 말씀과/ 갇힌 중에 부르던 찬송 소리가/ 광야의 꽃이 되었나이다/ 주의 이름 부르께 하나이다.

이사야는 낫선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으라고 권고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 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뤄 내는’ 이민교회는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노래를 부르는 열방의 빛이요 광야의 꽃인 것입니다.

3.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

이사야 43:14-21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꿈을 노래합니다. 그들이 가진 ‘바벨로니안 드림’은 낯선 땅에서의 뿌리 내림이 아니라, 그리운 고향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이 꿈에는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소환되어 있습니다(16-17절). 이 놀라운 이전 일에 대한 기억은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으로 하여금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찬 490장 2절). 이는 고통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전에 일하셨던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옛날 일”에는 출애굽의 기억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전통에서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사야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 이해를 너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해,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꿈은 첫 번째 출애굽을 닮은 또 하나의 출애굽(another exodus)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new exodus), 곧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우주적 새 창조를 지향(志向)합니다. 성서학자 브레바드 차일즈(Brevard Childs)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에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사야는 죄와 벌 그리고 순종과 상이라는 전통적인 권선징악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너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낫선 땅에서 뿌리 뽑힌 채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그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결과, 곧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을 꿈 꿉니다(20절). ‘이 놀라운 꿈’이 이민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요(찬 490장의 후렴, O this wonderful dream is “a secret of grace”),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삶으로 노래하는 것이 이민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III. 생각을 삶으로

1.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국 땅에 보내신 목적(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그리고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소그룹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